

광주 '불량 소화기' 교체 소동

'청운소방' 제조 1만2,825개 유통…아파트·주택가 중심 수거

시민들 뒤늦은 조치에 분통

광주시내 주택가와 아파트 등지에서 불량 소화기 교체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청운소방(주)'이 제조한 소화기가 '불 끄는 소화기'로 판명되면서, 업체가 전격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업체가 6개월 전 불량으로 판명난 소화기를 이제서야 바꿔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운소방(주)'의 소화기가 불량소화기인 것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8월. '청운소방(주)'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불 끄는 핵심 약품인 인산암모늄 대신 황산암모늄을 소화기에 채워넣었다. 황산암모늄은 인산암모늄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하고, 소방방재청은 '청운소방(주)'이 지난 2005년 8월부터 1년간 31만여개의 소화기를 만들었으며, 이중 70%인 22만여개가 불량인 것으로 확인했다. 광주에서는 1만2천825개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당시 '청운소방(주)'을 겸찰에 형사고발하고 불량소화기의 교체를 명령했으나, 이 회사의 대표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공사장 물웅덩이 방치

5세 어린이 빠져 뇌사

다섯 살 어린이가 보건지소 신축현장에 난 구덩이에 빠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다.

20일 오후 5시께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 보건지소 신축 현장에서 안모(5) 군이 정화조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깊이 1m20cm·지름 3m)에 빠져 있는 것을 금당면사무소 직원이 발견, 소방서에 신고했다.

안 군은 즉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안 군은 사고 당시 공사현장 인근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으

며, 구덩이에는 최근에 내린 비로 인해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안 군의 아버지(31)는 "공사현장 인근은 평소에 어린이들이 자주 놀던 곳인데도 안전표지판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 군이 친구들과 놀다 구덩이를 미처 보지 못해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사고가 난 보건지소는 완도군이 지난해 12월 4억5천만원을 들여 착공한 것으로, H건설이 수주해 오는 5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불량 소화기

광주시 동구 운림동 라인아파트 앞에 수거 중인 불량소화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청운소방(주)'이 제조한 이 소화기는 유류 화재시 소화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운소방(주)'를 인계한 '조경산업'이 새 것으로 바꿔주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아파트 불 40대 숨져

어제 새벽 목포서

21일 새벽 2시23분께 목포시 용해동 모 아파트에서 불이나 이 아파트에 사는 박모(45)씨가 숨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 23㎡ 가량을 태

워 5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뒤 박씨의 핸드폰으로 "내가 집에 불을 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점 등으로 미뤄 박씨가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현장에는 지름 2m, 깊이 15cm

사립교 이사장이 학교서 교장 폭행

해남 모 중·고…도교육청 진상조사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H이사장은 휴대전화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G교장도 휴대전화를 꺼놓고 일체 면회를 사절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내에서 발생한 이번 폭력을 종대사건으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상 조사결과 이사장이 등산용 지팡이로 교장을 때려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돼 자세한 폭행이유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G교장은 폭행을 당하자 이사장실에서 뛰쳐 나와 학교 앞 상점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교장은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목포 기독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문제와 관련해 이사장의 요구사항을 교장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국제결혼 부부 '칼부림'

30대 조선족 광주 남구서

잠자던 남편 흉기로 찔려

30대 조선족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은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36·조선족)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 남구 도금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이모(46)씨를 흉기로 찔러 등과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남편 이씨는 현재 광주 씨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994년 이씨와 결혼한 뒤 입국해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성격 차이로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러나 변호사가 온 뒤에 조사를 받았더니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장성 산불 임야 3ha 태워

21일 오후 1시50분께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앞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임야 3ha와 소나무 등 잡목 3천720그루를 태우고 186만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4시간여 만에 끈졌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기수 이현우 무면허 음주운전



○…가수 이현우
(41·본명 이상원·
사진)씨가 운전면허 없이 솔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로 경찰에 입건.

○…인천 남동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 나들목 인근에서 혈증 알코올
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

○…경찰은 이씨가 국제운전면허
증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연합뉴스



와 함께하는 세계 과학 학습 체험전

www.bugsstory.co.kr



1.20 ~ 3.18
13시 ~ 14시 45분

문의: 062-220-0541
1588-0766